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2주일  
 제27권 14호 (다해) 2007.3.4

## [묵상]



### 오시어

말씀이 피투처럼 깨어나 흐르고  
 바람이 훈훈한 입김처럼 불어와  
 닭이 울고, 개, 돼지가 짖는 우리 동네  
 오시어, 우리 이웃에서 살고 계시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3단계 종료)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이야기 성서반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이야기 성서반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십자가의 길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전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마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조순형
	(생) 조지가보라, 에블린 웨리아,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송성장 릴리오, 이상곤 다니엘
주 일 낮 미사	(연) 김기하 요셉, 김창배 파스칼, 최복덕 마리아 이인순, 테니스웨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용관 베드로 & 윌귀출 마리아, 박계일 최송 베드로 & 희진 베로니카
	(생) 김영남 레지나, 이근모 마리오, 이종원 베드로 가정 이종민 요셉, 성지 순례 가시는 모든분들과 인솔하시는 수녀님 & 신부님을 위하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 15,5-12,17-18
화답송	◎주님은 나의 빛 내 구원이시로다. 내 구원이시로다. <전례성가 65 사순 제2주일 C해> ◎주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내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내 누구를 무서워하라.◎ ◎주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이내 마음 당신께 아뢰옵고 이내 얼굴 당신을 찾고 있삽나이다.◎ ◎주여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그 얼굴 나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진노하시 당신 종을 내치지 마옵소서. 내 구원의 주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제 2독서	필리피서 3,17-4,1
복음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도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루카 9,28ㄴ-36
영성제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토요특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 ~ 58	33 ~ 42
입당	149	156
봉헌	382	254, 259
성체	431	301, 298
파견	158	153

● 부활축제를 준비하는 사순절 ●

사순절은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초대 교회는 단식과 참회와 기도로써 부활절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정신은 사순절의 전례 안에 많이 배어 있다. 초대 교회의 관습에 의하면, 중죄를 지은 이가 자신의 죄를 주교와 공동체 앞에 공적(公的)으로 고하면, 주교는 그에게 참회 기간을 정해 주었다. 참회자는 “재의 수요일”에 참회복(공식적으로 참회자임을 알려주는 복장)을 정식으로 입고 공적 참회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영성체가 금지되었다. 성 목요일 오전에 이러한 참회자들과 교회 공동체간의 화해예식이 이루어지며, 이로써 참회자들은 정식으로 부활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공적 참회와 공적 화해가 이 사순시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순절이 단식과 기도로 파스카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보다 죄의 용서를 위한 고행과 보속의 시기라는 점이 더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갖가지 형태의 고행 방식이 퍼져 나갔다. 하지만 공적 참회와 공적 화해예식이 없어진 지금, 사순절의 본래 뜻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5~6세기부터 사순절은 파스카 밤에 이루어질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겨졌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 묻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 허덕이던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못 박음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던 자아를 소멸시키고 자유와 진리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로마 6,6-8 참조)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며,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치유와 회복, 자비와 용서, 사랑과 평화, 광명과 생명의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고행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올바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 즉 정화와 성화(聖化)의 시기라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사순절은, 예비신자들의 세례준비는 물론 신자 자신의 세례 은총을 회상해 봄으로써 진지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보속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파스카 신비, 주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랜만에 먼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가정주부는 기쁨을 안고 집 안팎을 깨끗이 정돈하고, 특별히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참회와 속죄, 극기와 희생을 통하여 기쁨 중에 주님의 수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당신의 하느님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높은 산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좌정하고 계시던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본래 모습이 잠시 드러나셨던 것입니다. 또 그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하느님을 뵈는 분들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에 따르면 사람은 죽어서만 하느님을 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뵈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탈출기를 보면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느님께서 백성들이 하느님을 보려고 마구 다가오다가는 죽을 것이라 하였고, 사제들도 하느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외적으로 모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뵈었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느님을 뵈는 사람입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기는 합니다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걸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을 직접 만나기는 하였지만 모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로 갔으니 그 또한 살아서 하느님을 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는 오직 이미 육체를 가지고 하느님을 뵈었던 모세와 엘리야만이 동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동석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세 사도들은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하느님을 뵈고도 죽지 않는 영광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얼마 후에 모든 사도들과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광채가 가득한 모습을 사도들에게 자주 보여 주셨습니다. 그 광채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뵈고도 얼른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변쩍었다” (루카 9,29)는 표현은 바로 훗날 부활하신 모습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는 사도들은 뒤늦게나마 이 높은 산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며 하느님을 뵈고도 죽지 않는 은혜를 받은 셈입니다.

우리들도 이 영광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성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며, 이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백남용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래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김교복 (레오)	전배형 (베드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	변혜경 (울리아나)	김정심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 북 3반

####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진향 (아네스)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황지영 (안젤라)	박진숙 (엘리사벳)
제물봉헌자			하/갈 1,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 4,084단 ☞ 총 합계 : 98,397단

- \*\*\*\*\*
- ◆ 사순절 십자가의 길
-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을 위한 고통의 길에 주님과 함께 합니다.
- 사순 제2주간 금요일(3월 9일) : 토렌스 남구역
  - 사순 제3주간 금요일(3월 16일) : 토렌스 북구역
  - 사순 제4주간 금요일(3월 23일) : 하버/칼슨 구역
  - 사순 제5주간 금요일(3월 30일) : P.V. 구역
- ※ 기도시간은 오후 7시30분입니다.
- ◆ 사순절 특강
- 3월 6일(화) : 신요안(세례자요한) 신부
  - 3월 13일(화) : 성령세미나 (오후 8시, 성프란치스코)
  - 3월 20일(화) : 구 마리아네 수녀
  - 3월 27일(화) : 이 사피엔치아 수녀
- ※ 특강 시간은 오후 7시30분입니다.



- ◆ 과달루페 성지순례단 예비모임 : 오늘 주일 오후 1시, 강당
- ◆ 본당 성지순례 일정으로 이번 주 3월9일 금요일 아침미사가 없습니다.
- ◆ 양业协会 주체-메디케어 파트 D (Medicare Part D) 설명회
  - 3월18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강사 : 김마틴
  -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처방약 커버에 대한 설명회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한국 성모자 순교자 부조상 건립기금 본당신자 1인당 \$6씩 3월18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봉헌해 주시기바랍니다.

- \*\*\*\*\*
- ◆ 주일학교 사순피정 @ Crestline Retreat House
- ❖ 11~12학년, 배론 청년회와 함께
    - 3월16일(금)~17일(토)
      - 성당 출발 금 오후 7시30분
      - 성당 도착 토 오후 9시30분
    - 피정비 : 1인당 \$20 ● 문의 : 변안젤라 920-4149
  - ❖ 6~10학년
    - 3월23일(금)~25일(주일)
      - 성당 출발 금 오후 5시30분
      - 성당 도착 주일 오후 4시
    - 피정비 : 1인당 \$65 (개인부담 \$40, 성당 보조 \$25)
    - 문의 : 변안젤라 920-4149
- \*\*\*\*\*

- ◆ 성서모임 안내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 거룩한 독서는 기도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참된 삶의 힘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말씀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수요일 반 : 오전 10시30분, 강당, 3월14일 개강
  - 금요일 반 : 오전 10시, 강당, 3월16일 개강  
오후 7시30분, 강당
  - 신청 : 이복임 엘리사벳 (310)516-0818

- \*\*\*\*\*
- ☺ 환영합니다. ☺
- 지난 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박상준 바오로 (토렌스 동 1반)
  - 김혜령 아네스 & 이상운 프란치스코 (토렌스 동 4반)  
자녀 : 승휘 사무엘 & 진휘 베드로
  - 안희경 크리스티나 & 이상철 & (토렌스 동 4반)  
자녀 : 현배 바오로 & 웅배 가브리엘
  - 정창진 테레사 (P. V. 4반)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구본엽 국세찬 권순봉 구자운 김대우 김상근 김윤진 김 은 김일선 김재연 김정웅 김찬구 김철수 문충한 민병숙 박수익 박승순 박현주 배기엽 변세연 서성용 서홍삼 오명섭 오세원 오호순 우영희 원건희 유근태 유선식 유효연 윤영훈 윤희동 이병우 이상규 이석진 이숙화 이종한 임성택 임송죽 임연조 임하나 장영진 정기은 조소영 주재기 최원석 한금순 한연만 한창주 홍숙자 황지영 합계 : \$6,855	성전헌금	강숙경 구본엽 국세찬 권순봉 구자운 김대우 김상근 김윤진 김일선 김재연 김정웅 김철수 문충한 박수익 박승순 배기엽 김찬구 서성용 서홍삼 오세원 오호순 이영희 김대우 유선식 윤영훈 윤희동 이병우 이상규 이석진 김대우 이종한 임송죽 임하나 장영진 정기은 김대우 한금순 한연만 한창주 홍숙자 황지영 김대우 김찬구 변세연 원건희 이숙화 최원석 합계 : \$3,965
미사헌금	\$2,763	감사헌금	김철수 송호창 정규숙

# 남가주 소식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 꽃동네 제1차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피정
  - 3월6일(화)~7일(수)                      ● 대상 : 60세 이상
  - Temecula 꽃동네 피정의 집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신청문의 : (951)302-3400, 303-0421
- ◆ 성령안에 성장 세미나
  - 주제 :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1테살 5,19)
  - 3월13일(화)~17일(토), 오후 6시30분~10시  
18(주일), 오후 3시~오후 7시
  - 성 프란치스코 성당 2040 W. Artesia Blvd., Torrance
  - 참가비 : \$20                      ● 지참물 : 기도공동체 성가
  - 강사 : 김찬용 배드로 신부, 대전교구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 주관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후원 : 남가주 사제 협의회, 남가주 평신도 협의회
- ◆ 아나시오의 영신 수련
  - 일상안에서 기도하면서 약 8~9개월동안 19번 영신수련
  - 3월17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5시
  -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 성가대 방
  - 개인피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 문의 : 정 도로테아 (818)321-9505, 남가주 CLC회장
- ◆ 제4차 영적성장을 위한 감성 수련 피정
  - 3월23일(금)~25일(주일)
  - 지도 : 문중원 신부 (서울 대교구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 Temecula 꽃동네 피정의 집
  - 문의 : 951-302-3400                      ● 수강비 : \$140
  -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 옷, 편안한 신발
- ◆ 한국어 혼인 강좌 신청
  - 4월14일(토) 오전 8시
  - 신청마감 : 4월2일(월)                      ● 수강비 : \$50
  - 성 제임스 성당, 강당
  - 4651 Dunsmore Ave., La Crescenta, CA 91214
  - 연락처 : (818)248-0496, (818)926-9687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김양금 안나 518-3041 3/24(토) Field Trip (Flower Field Carlsbad)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10(토)오후7시, 강당
	3	정정숙 레아	정정숙 레아 791-5696
	4	권본경 율리아	형제반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Getty Center 방문 200-0512 3/4(주일)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3/8(목)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999-5677	이은록 요셉 999-5677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배기엽 클레멘스 325-7733 3/16(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광자 소화대례사 533-9312 3/14(수) 오전 10시30분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320-3662 3/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갈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908-5544 3/18(주일) 오후 5시
	2	김희복 아레스 326-2283	권태만 실베스터 989-9089 3/17(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클라라	홍클라라 544-6290
	2	김명재 아가다	허정자 릿다 377-0421 3/17(토) 오후5시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 사람을 구합니다.

### ❖ Bookkeeper 구함❖

- 분야 : Pharmacy에서 bookkeeping 하실 분
- 자격 : Fluent English  
Quick Book, Excel Experience required
- 문의 : (213)820-7636

##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	오후 1시, 각방
---------	-----------

## 2007년 사순절 메시지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사순시기 동안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회개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페 4,22-24).

따라서 사순시기는 참회와 보속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쇄신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시기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데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자는 데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다가올 부활 축제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에 우리 신앙인은 머리 위에 재를 받으며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인생의 완성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불행인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25-26).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없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홀로 맞서야 하는 고독과 미지의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삶으로 넘어서는 구원의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삶은 일반적으로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무엇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단식과 자선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식과 금육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절약과 절제로 얻은 대가를 이웃과 나눌 때 희생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눌 때 소유욕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선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베푸는 사람에게도 내적인 풍요로움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도 회개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믿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사순시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